

‘임을 위한 행진곡’에 찢긴 5·18 ... 광주주는 아프다

기념식 취정부 이후 3년째 파행 국민 염원에도 정부 꾀적안해 공식 기념곡 지정해 ‘제창’ 심각한 국론 분열 막아야

관련기사 2·3·4·6·7·16·18·22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편협한 논리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분열과 갈등을 3년째 되풀이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지대하게 기여함으로써 가장 성대하게 치러져야 할 35주년 기념식이 돌로 갈라져 ‘5월 정신’이 크게 퇴색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만이 5·18을 놓고 돌로 갈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 주요인사, 국회의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은 개식,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폐식 순서로 진행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 기념사를 했다.

최 부총리는 기념사에서 “빛고를 광주에서 뜨겁게 타오른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의 민주화에 이정표를 세우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 정의, 인권의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돼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도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주최의 기념식이 진행됐다. 5·18 기념식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째 ‘파행’으로 치러졌다.

정부 기념식은 ‘5·18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齊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유족, 5·18 직접피해당사자, 5·18 단체 등이 불참한 채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유

어? 성경이 읽어지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전남 의원들 ‘5·18 모임’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에서 열린 ‘제35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윤창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문 대표, 김 대표, 정 의장, 최 부총리, 박 처장, 윤 시장, 이 지사.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족 등은 대신, 도청 앞 기념식장을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따로따로 기념식을 치렀다.

정부 기념식은 올해 총리가 물러나 공식인 상황에서 대통령도 불참한데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5월 정신을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국민 대통령의 감동은커녕, 3년째 ‘갈등과 분열의 드라마’를 국민에게 보여준 셈이다.

강종우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일베를 비롯한 극우세력과 종편이 왜곡하더니 국가보훈처라는 정부 기관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식으로 지정해 분열을 끝내고 이와 별개로, 5·18의 가치를 확산시켜 분열을 이용하려는 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文대표, 당이 처한 상황에 책임 통감해야”

광주·전남 의원들 ‘5·18 모임’

“보선 패배 자성 혁신 나서겠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8일 오전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표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4면〉

또 당의 혁명적 변화가 절실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재보선 패배를 자성하며 당의 혁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진노 성향 일부 의원들은 사퇴보다는 문 대표의 쇄신 노력에 힘을 실자는

입장을 견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원들을 상대로 문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 대표가 제안한 ‘혁신기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일단 지켜보자”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역 참배 자리에서 “우리당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을 통해 총선 승리 및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주승용 의원을 만나 최고위원직 복귀를 설득했지만 동의할 여지가 없었다. 주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당 내홍 수습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혁신기구를 만들어 혁신 작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비공개 성명서 논란에 대해서는 “친노 패권주의 공격이 응답치 못해, 할 말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날 문 대표에게 ‘친노 수장이 아닌 비노 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당 혁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도 전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U대회 빛 지구촌 밝힌다

프랑스 소르본대서 성화 채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를 알리는 성화 불빛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20면〉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윤창현·김환식)가 18일 ‘대학 스포츠 발상지’인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김응식 조직위원회부위원장, 바르텔레미 조베르 소르본4대학총장이 채화해 필루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 장프랑수아 소트르 FF-SU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 채화식을 열었다.

채화된 성화는 파리를 상징하는 루브르박물관, 개신문, 에펠탑을 둔 뒤 차가 하계 U대회 개최지인 대만 타이베이시로 옮겨진다. 6박7일 동안 1만 9900km의 길을 달려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 축제를 알리게 된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빛은 오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한국을 밝힌다. 해외 성화는 U대회 조직위원회에 안치돼 국내에서 채화된 성화와의 합화식을 기다리게 된다.

국내 성화채화식은 6월2일 국립공원 무등산 장봉재에서 열린다. 채화된 국내 성화는 3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해외 성화와 합화된다.

합화된 성화는 6월4일 조직위를 출발해 21박22일 동안 제주도 등 전국 17개 시도 60곳(지자체 51, 대학교 9)을 돌며 스포츠 축제의 흥을 돋운다.

국내 성화봉송에는 주주자 1명과 보조주자 4명 등 총 3150여명이 참가하며, 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7월3일 특별주자에 의해 주경기장 성화대에 불이 밝혀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의 하루

22쌍 결혼 8쌍 이혼한다 ▶2면

The essence of luxury.
The all new Mercedes-Maybach S-Class

Mercedes-Benz